

수퍼메이저의 신사업전개(2)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International Oil News

3. BP

BP의 탄생과정

BP(British Petroleum Corporation)는 1998년 8월 미국의 Amoco와의 합병을 발표, 같은 해 12월 31일에 합병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BPAmoco로 고쳐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어 1999년 3월, BPAmoco는 미국의 ARCO사와 인수교섭 사실을 발표하고 4월 1일에 ARCO가 BP와의 합병합의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양사 주주총회, 다음해인 2000년 4월에는 미국 FTC의 승인을 받아, BPAmoco는 ARCO를 흡수, 후에 사명을 다시 BP로 변경했다. BP는 1996년 8월에 Mobil과 유럽지역 하류부문에서 제휴했었으나, Exxon, Mobil간 합병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2000년 2월 EU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01년 현재 총자산은 749억 9,400만\$, 총매출액은 1,753억 8,900만엔, 순이익은 80억 1,000만\$이다. 2001년말 종업원수는 11만 200명, 1년전의 10만 7,200명보다 늘었다.

BP의 전신인 Anglo Persian Oil Co.는 영국인 대사가 이란에서 발견한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1909년에 설립, 1935년에 Persia가 국호를 Iran으로 변경해 Anglo Iranian Oil로 개명했다. 1951년에 Iran의 모자택 정권이 Anglo Iranian의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모자택 실각 뒤 1953년 11월, Iran석유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Iran consortium이 설립되었다. Iran은 1954년에 Iran consortium과 작업청부계약을 체결, Anglo Iranian은 같은 해 12월에 British Petroleum인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한창 타 올랐던 자원 내서 널리짐에 따라, Iran을 비롯해 Kuwait나 Iraq등 중동 지역에서 갖고 있던 권익을 잇달아 잃었지만, 북해와 Alaska 개발에서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BP 산유량의 반 이상은 영국령 북해와 Alaska에서 생산된다.

수익 · 투자동향

1998년 12월 31일자로 BPAmoco로 새롭게 출범, 후에 ARCO를 흡수하여 거대해진 BP는 2001년에 80억 1,000만\$의 순익(historical cost profit after taxation)을 올렸다. 2000년의 118억 7,000만\$를 32.5%나 밀도는 수준이다. 그래도, 합병 이전보다 수

익규모는 확대되었다. 2001년 매출액은 1,753억 8,900만\$(2000년은 1,618억2,600만\$)로 매출액 이익률은 4.6%, 1년 전의 7.3%에 비해 크게 낮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사건에 의한 영향으로 2001년 4/4 분기에 4억 500만\$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는 24억 1,000만\$ 흑자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8억\$의 cost 절감 등 세전 기준으로 20억\$ 상당의 영업실적 개선목표를 달성했지만, 4/4분기의 시장환경 악화가 BP 사업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BP도 상류나 화학부문의 영업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하류인 정제·판매부문은 비교적 괜찮았다. 탐광·생산부문 순익은 2000년의 157억 1,000만\$에 비해 2001년에는 144억 9,800만\$로 7.7% 줄었다. Gas & Power 부문은 5억 7,100만\$에 비해 5억 2,100만\$로 8.8%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제·판매부문은 2000년의 45억 5,800만\$에서 2001년의 48억 3,000만\$로 늘어나 6.0%의 이익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화학부문은 10억 3,600만\$에서 2억 4,200만\$로 줄었고, 기타 사업부문은 계속 적자(전년의 6억 2,200만\$에 비해 4억 8,300만\$ 적자)를 기록했다.

2001년의 원유와 NGL 생산량은 193.1만b/d(2000년 192.8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86억 3,200만입방ft/d(76억 900만입방ft/d), NGL 판매량은 41만b/d(34.9만b/d), 석유제품판매량은 620.6만b/d(552.3만b/d), 원유판매량은 447.3만b/d(598.4만b/d), 정유공장 처리량은 292.9만b/d(291.6만b/d)이다.

BP의 자본탐광지출은 2000년의 476억 1,300만\$에서 141억 2,400만\$로 격감했다. 2000년 투자에는 ARCO 인수에 따른 275억 600만\$, Burma Castrol 주식 인수를 위한 46억 8,600만\$, 유럽 합작사업을 위한 Mobil주식 취득으로 지출한 14억 5,000만\$ 외에 Vastar의 소수권익 취득을 위한 16억 8,800만\$, Petro-China의 2.2% 권익취득을 위한 5억 7,800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류부문의 탐광·생산투자는 2000년의 63억 8,300만\$에 비해 2001

년에는 88억 6,100만\$, Gas & Power는 3억 3,600만\$에 비해 3억 5,900만\$로 늘어났다.

한편, 하류부문의 정제·판매투자는 2000년의 86억 9,300만\$에 비해 2001년에는 24억 1,500만\$로 크게 감소했다. 단지, 화학부문 투자는 15억 8,500만\$가 19억 2,600만\$로 크게 늘었다.

상류부문

BP가 보유한 2001년말 확인매장량은 원유가 72억 1,700만Bbl(2000년 65억 800만Bbl), 천연가스가 42조 9,590억입방ft(41조 1,000억입방ft)로, 1년 전 보다 원유가 10.9%, 천연가스가 4.5%로 늘어났다. 2001년의 원유생산량은 193.1만b/d로 전년의 192.8만b/d보다 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영국 국내가 10% 감소한 48.5만b/d(53.4만b/d), 미국 국내가 2.1% 증가한 74.4만b/d(72.9만b/d), 기타 지역이 5.6% 증가한 70.2만b/d(66.5만b/d)이다. 영국 국내는 줄었지만, 미국 국내와 기타 지역은 늘어났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86억 3,200만입방ft/d, 지난해의 76억 900만입방ft/d 보다 13.4%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영국 국내가 3.7% 증가한 17억입방ft/d(16억 5,200만입방ft/d), 미국 국내가 16.4% 증가한 35억 5,400만입방ft/d(30억 5,400만입방ft/d), 기타 지역이 15.9% 증가한 33억 6,500만입방ft/d(29억 300만입방ft/d)로 모든 지역에서 늘었는데, 특히 미국 국내 증산이 크게 늘었다.

2001년에는 적극적인 탐광·개발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 생산계획이 순조롭게 가동에 들어가고, 북극권 북방 250마일, Alaska앞바다에서는 North Star 유전에서 석유가 분출했다. 미국 Gulf of Mexico의 수심 4,400ft에 있는 Crosby와 Mica 양 유전이나 Angola의 수심 4,200ft에 있는 Girassol 유전도 잇달아 생산에 들어갔다. 트리니다드에서는 천연가스 매장원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 LNG 처리공장이 2002년 중에 조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그 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이 engineering·설계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멕시코만의 Horn Mountain, 킹스피크, 킹 등의 여러 유전도 2002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이미 발전이 끝난 유전·가스전의 평가·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thunder horse(이전 crazy horse)와 Holstein의 2개 유전, Gulf of Mexico의 (Mardi Gras)pipeline, 아울러 Angola, Egypt, Alaska, Norway, Azerbaidjan, Trinidad, Argentina, 영국의 Shetland Islands서쪽 지역 개발에도 착수하고 있다. 2001년 안에 성공한 탐광안전에는 Trinidad, Egypt, Angola앞바다 등이 있다.

바쿠~토비시리~세이한 석유pipeline은 세부 engineering단계에 들어가 2005년에는 가동을 시작될 예정이다. pipeline등의 부설이 완료되면, 풍부한 Caspian Sea의 석유를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길을 열 수 있다.

하류부문

2001년의 원유처리량은 292.9만b/d로 전년의 291.6만b/d보다 0.4% 증가했다. 원유판매량은 25.3% 감소한 447.3만b/d(598.4만b/d)을 기록했지만, 제품판매량은 반대로 5.9% 증가한 620.6만b/d(585.9만b/d)를 기록했다. 제품판매량중, 영국 국내는 3.9% 증가한 26.6만b/d(25.6만b/d), 나머지 유럽지역은 17.9% 증가한 106.2만b/d(90.1만b/d), 미국 국내가 4.7% 증가한 186.6만b/d(178.3만b/d), 나머지 세계가 25.6% 증가했다. 모든 지역에서 증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 trading 등의 판매량이 14.6% 증가한 240.9만b/d(210.3만b/d) 등이다.

2001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정제 margin이 양호해 하류부문의 영업실적을 지탱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영국 공히 정제 margin이 축소되었다. 9월에는 전략방침에 따라, 미국 맨턴과 솔트레이크의 2개 정유공장 매각을 완료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공익 사업체 E.ON 으로부터 Veba Oil 주식의 51%를 취득한다는 계획이

크게 진척되었다. 2001년 중반에 발표된 결정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거래계약 체결은 2002년 초에 마무리되었다. 이 결과, 하루 150만명의 신규고객이 늘어난 셸인데, 독일 최대 연료유 소매업자로 약진, 중부유럽의 청정연료 공급능력이 확대되었다.

2001년은 판매분야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해였다. BP의 편의점 판매량은 23%, 소매연료판매량은 8%나 늘었다. 2000년의 합병효과가 2001년에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BP Connect 소매편의점이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BP Connect 소매 convenience store brand 도입은 2001년에 진행되어 신규 점포는 총 339개가 되었다. 구 BP와 구 아모코 주유소가 새로운 color와 로고를 사용한 개장·도장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미 4,660개 이상의 점포에서 마무리되었다. 어려운 무역환경이지만, castrol 브랜드의 유통유사업도 판매 share가 확대되었다.

화학·Gas & Power 등

화학부문의 경영환경은 상당히 어려워 2001년의 수익은 2억 4,200만\$, 작년의 10억 3,600만\$보다 7억 9,400만\$나 감소했다. 화학부문 강화의 초점은 대상·소수 사업분야로 집중, 세계 top class의 지위를 쌓는 일인데, Beyer이 보유하고 있는 50% 주식 취득을 통해 Erdolcheme의 완전지배권을 취득했다. Solvay와는 양사의 고밀도폴리에틸렌 사업을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Solvay의 poly propylene사업은 BP로, BP의 core가 아닌 engineering Polymer사업은 Solvay로 이전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업이 채산성 맞지 않고, core가 아닌 몇 개 공장의 폐쇄를 발표했다.

Gas & Power부문 수익도 2001년에는 5억 2,100만\$에 머물러 전년 수준을 5,000만\$ 밑돌았다. Marketing과 Trading 등에서의 영업실적 향상에 의해 일부 보충되었지만, 액체천연가스(NGL)사업의 영업실적 저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스 판매량은 2001년의 당초 목표 그 이상을 달성했다. BP가 최대급

천연가스 판매업자 위치에 있는 북미에서는 특히 호조를 나타냈다. Spain에서는 유럽 지역 가스 확대 일환으로 자유화된 가스시장에 신규 참여해서 기반을 굳혔다.

2001년 12월에는 Indonesia의 탕기슈 가스 프로젝트로 BP와 partner 관계에 있는 페르타미나가 이 project 최초의 Philippines의 잠재 고객과 letter of intent에 조인했다.

기타 사업으로는 2001년에는 BP의 solar전지 생산이 30% 늘어나 세계의 solar시장에서 차지하는 BP의 share가 18%로 상승했다.

(Oil Report, 2002. 10. 14)

4. ChevronTexaco

탄생과정

1998년 10월, Chevron과 Texaco의 Suez以東 지역 합작회사 Caltex는 본사를 미국 Dallas에서 싱가포르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Texaco가 연간 2억\$ 규모의 cost절감을 위해 생산·개발 직원 1,000명 삭감, 같은 해 12월에는 Chevron이 1999년에 5억\$의 cost삭감, 922명의 인원삭감 추진 등의 restructuring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두 회사의 합병교섭이 부상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이 여의치 않아 1999년 6월에는 Texaco와 Chevron의 의견차이가 커 합병교섭이 한 때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0년 10월, Chevron이 주식교환방식으로 Texaco를 350억\$에 인수하고, 사명을 ChevronTexaco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 10월, 이들 두 회사 주주총회에서 Chevron의 Texaco 인수가 승인되어,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에 이은 세계 4위의 수퍼메이저가 탄생했다.

2001년 현재 총자산은 775억 7,200만\$, 총매출액은

1,062억 4,500만\$, 순이익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32억 8,800만\$에 달한다. 2001년말 종업원수는 55,800명, 1년 전의 57,300명보다 줄었다.

Chevron의 전신인 Pacific Coast Oil은 1879년에 설립되어 1926년에 설립된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Socal)에 흡수되었다. Socal은 1901년 설립될 Gulf Oil을 1984년에 흡수·합병하여, Chevron 사명을 Corporation으로 바꿨다.

한편, Texaco의 전신인 Texas Oil은 1901년에 설립, 1926년에는 지주회사인 Texas Corporation이 탄생했다. 1936년에는 SOCAL과 Texaco가 절반씩 출자한 회사로 California Texas Oil, 약칭 Caltex를 절반씩 출자해 설립, Suez 운하 以東에서 공동조업 했었지만, 이번은 모회사들이 대합병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국내에서 Texaco는 Shell과 동시에 정제·판매 합작사업인 Motiva와 Equilon에 자본참여하고 있어, 시장세여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이 Chevron과의 합병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Texaco가 보유한 Equilon 주식 44%와 Motiva 주식 32.5%를 내놓음으로서 FTC로부터 합병을 정식 인정 받았다.

수익·투자동향

2001년 10월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출범한 ChevronTexaco의 순익(세후)은 2001년에 32억 8,800만\$에 머물러 2000년의 77억 2,700만\$보다 57.4%나 감소했다. 특별비목 17억 4,300만\$과 합병효과 17억 7,900만\$를 제외한 순익이다. 매출액은 1,062억 4,500만\$(전년 1,191억 3,000만\$), 매출액이익률은 전년의 6.5%에 비해 3.1%로 감소했다. 2001년 4/4분기 순익은 미 테러사건 후의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전년동기의 20억 3,900만\$ 흑자에 비해 25억 2,200만\$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특별비 18억 5,200만\$와 합병효과 11억 6,800만\$를 제외한 순익으로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흑자이다.

ChevronTexaco의 순익은 상류의 탐광·생산부문에
서는 2000년 71억 5,500만\$에서 2001년 43억 3,100
만\$로 39.5% 감소한 데 비해 정제·판매·수송부문에
서는 11억 3,500만\$에서 18억 1,400만\$로 59.8%나 늘
어났다. 그러나, 화학 등 기타 부문은 4억\$ 흑자에서 1
억 2,800만\$ 적자로 전락했다. 2001년의 원유·NGL
생산량은 195.9만b/d(199.7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44억 1,700만입방ft/d(44억 6,600만입방ft/d), 석유제
품 판매량은 534.8만b/d(518.8만b/d), 정유공장 처리
량은 257.4만b/d(267.6만b/d)이다.

ChevronTexaco의 자본탐광지출은 2001년 120억
2,800만\$로 2000년 95억 2,000만\$에 비해 확대되었
다. 미국 국내가 2000년의 43억 5,500만\$에 비해 59
억 3,100만\$, 미국 외 지역이 51억 6,500만\$인데 비해
60억 9,700만\$로 국내외에서 모두 늘어났다. 전 세계
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광·생산부문 투자액은 62억
3,200만\$에서 71억 2,700만\$로 정제·판매·수송부
문은 20억 4,000만\$에서 21억 4,400만\$, 화학부문은
1억 8,700만\$에서 1억 7,900만\$로 늘어났다. 기타가
10억 6,100만\$에서 25억 7,800만\$로 크게 증가했는
데, 2001년의 기타 투자에는 Dynergy Inc.에 대한 추
가 투자나 Tengichevroil 주식 5% 추가취득이 포함되
어 있다. Dynergy에 대한 추가투자를 차치하면, 2000
년과 2001년 공히 탐광·생산부문 투자가 자본탐광지
출 총액의 68%를 차지했다.

상류부문

ChevronTexaco는 Gulf of Mexico, 서아프리카, 카
스피해 지역 등 세계의 주요 석유·가스지대에서 조업
하고 있고, 35개가 넘는 나라에서 탐광·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Kazakhstan, Indonesia, Angola에서는
최대 석유·가스 생산회사이다. 미국과 Canada에서도
최대 생산회사로 Gulf of Mexico 대륙붕에서의 생산량
이 가장 많다. Nigeria와 브라질 심해에 유망한 탐광지
역을 보유하고, Gulf of Mexico 심해에 있는 임대광구

는 2번째로 넓다.

ChevronTexaco가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
스 매장량은 2001년에는 석유환산 기준 거의 12억Bbl
증가했다. 이 가운데, Kazakhstan의 텐기스 유전과
Venezuela의 Hamaca project에서는 굴착활동에 의해
이들 모두 1억Bbl 이상 매장량이 늘어났다. 석유환산
거의 2억Bbl 상당량이 Nigeria의 몇 개 가스전의 천연
가스 매장량의 증가분이다. 약 1억 6,000만Bbl은
Latin America, 북해, 서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발견
에 성공해 늘어났다. 아울러, 1억 7,500만Bbl은 2001
년초에 Kazakhstan의 텐기스와 콜로레프 유전에서
조업중인 50% 출자 계열회사 텐기스세브로일의 권익
을 5% 추가 구입함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원유와 액체
천연가스를 합한 순생산량은 2001년에는 195.9만
b/d(2000년 199.7만b/d)에 달한다. 지역별 내역은 미국
국내가 61.4만b/d(66.7만b/d), 아시아·태평양이 55.8
만b/d(57.6만b/d), Argentina, Canada, Colombia,
Denmark, Norway, 트리니다드, 영국, 베네수엘라가
총 29.6만b/d(30.1만b/d)이다. 2001년의 국별 생산구
성은 미국 31.3%, 인도네시아 15.5%, 앙골라 8.6%, 나
이지리아 8.1%, 카자흐스탄 7.8%, 중립지대 7.4%, 영
국 5.9%, 캐나다 3.3%, 오스트레일리아 2.3%, 기타
9.8%로 미국 국내 생산비중이 높다.

2001년에 Angola에서는 광구14의 심해부에 있는 쿠
트 유전에서 거의 3만 b/d의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했
다. Venezuela에서는 Orinoco Belt의 Hamaca project
가 같은 물량의 중질원유를 생산했다. 중국의 발해만에
서 10월에 조업에 들어간 QHD32-6유전이 평균 약 3
만b/d의 저유황원유도 생산하고 있다. 10월에는
Philippines의 Palawan Island 앞바다에 있는 마람파
라 가스전으로부터 천연가스 생산도 시작되었다.
Philippines 최초의 근해 앞 천연가스 생산이 되는 이
획기적인 project에 ChevronTexaco는 45% 출자했다.
이 심해저로부터 생산되는 가스는 해저 pipeline으로
루손까지 수송되어 3기의 화력발전소의 장기적인 연료

원으로 사용된다.

영국령 북해에서는 2001년 12월 ChevronTexaco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Alba Extreme South와 Caledonia의 양대 project의 개발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들 모두 동국의 북해중부의 core지역에 위치해, 생산중인 Alba와 Britannia 유전이 소재해 있다. Alba Extreme South Project의 첫 생산은 2002년 4/4분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 유전 전체의 원유생산량을 현재의 약 8만b/d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칼레도니아의 첫 생산은 2002년 3/4분기로 예정되어 있고, peak때 생산량은 약 13,000b/d로 예상된다.

탐광·생산부문 순이익은 2001년에는 전기 대비 39.7% 감소한 43억 1,200만\$(전기 71억 5,500만\$)로 크게 감소했는데, 미국 국내가 48.5% 감소한 17억 7,900만\$(34억 5,300만\$), 미국 외 지역이 31.6% 감소한 25억 3,300만\$(37억 200만\$)이다. 이들 모두 감소했지만, 미국 국내의 수익감소가 크다.

한편, 탐광·생산부문의 자본투자액은 전기대비 14.4% 증가한 71억 2,700만\$(전기 62억 3,200만\$)인데, 지역별로는 미국 국내가 2.9% 증가한 24억 1,800만\$(23억 5,000만\$), 해외가 21.3% 증가한 47억 900만\$(38억 8,200만\$). 이들 모두 늘어났지만, 해외에서의 탐광·개발투자가 훨씬 왕성하다.

하류부문

ChevronTexaco는 5개 대륙에 22개 산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전세계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총정제능력은 220만b/d가 넘고, Asia, Australia, Africa, 유럽, 중남미, 북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 주유소는 25,000개를 넘고 있다. 석유제품은 Chevron, Texaco, Caltex 3개 국제 brand로 판매하여 있고, 또 Havoline이나 Delo 등 윤활유나 특수제품 등 여러 가지 brand가 있다.

2001년 12월, ChevronTexaco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예상기준에 맞춘 저유황휘발유를 생산하는 미시시피주 Pascagoula 정유공장 증설계획(총공사비 1억 5,000만\$)의 허가를 받았다. 증설공사는 곧 시작되어 1년 후에 완공, 정제능력은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제·판매·수송부문 순이익은 2001년에 전기대비 59.8% 증가한 18억 1,400만\$(전기 11억 3,500만\$)로 크게 늘었다. 미국 국내가 73.9% 증가한 12억 5,400만\$(7억 2,100만\$), 해외가 35.3% 증가한 5억 6,000만\$(4억 1,400만\$)이다. 미국내외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내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자본투자액은 전기대비 4.6% 증가한 21억 4,400만\$(전기 20억 4,000만\$), 지역별로는 미국 국내가 4.0% 감소한 8억 8,600만\$(9억 2,300만\$), 해외가 12.6% 증가한 12억 5,800만\$(11억 1,700만\$), 미국 국내에서는 투자가 줄고 해외에서는 늘었다.

화학부문 등

화학부문은 2000년의 4억\$ 흑자에서 2001년에는 1억 2,800만\$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손익으로는 1억 3,000만\$ 흑자가 3,200만\$ 적자, 특별비 항목에서 적자가 9,000만\$에서 9,600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50% 출자한Chevron Philips Chemical Company (CPCChem)의 적자가 영향을 미쳤다.

CPCChem의 제품판매 마진은 원료유 cost 절감으로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인 경제후퇴에 의해 계속 부진했다.

화학부문 자본투자액은 2001년에는 미국 국내가 7.4% 증가한 1억 4,500만\$(작년 1억 3,500만\$), 해외가 34.6% 감소한 3,400만\$(5,200만\$).

기타 부문에는 다이내지에 대한 26% 출자분, 석탄채굴, 전력·가스업, 금융, 보험, 부동산, e-business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지만, 2001년에는 적자가 6억 300만\$에서 27억 1,000만\$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17억 7,900만\$는 합병에 따른 부담 증가분이다.

(Oil Report, 2002. 10. 21)

5. TotalFinaElf

탄생과정

TotalFinaElf는 France의 Total이 1998년 12월에 벨기에의 Petrofina와 흡수합병에 합의, 1999년 6월에 TotalFina가 되었다. 다음 해 7월에 France의 Elf Aquitaine과의 합병을 발표, 2000년 2월 EU위원회가 이 대형합병을 승인, 세계 제4위의 수퍼메이저가 탄생했다. 다른 수퍼메이저와 같이 소위 예전의 Seven Sisters의 일원에 속한 메이저가 모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메이저를 갖고 있지 않은 프랑스의 준 메이저가 합병흡수를 거듭해, 프랑스 1위와 2위 거대기업이 일원화해서 일시에 수퍼메이저로 약진했다.

2001년말 현재 TotalFinaElf의 총자산은 886억 Euro(작년은 851억 7,400만Euro), 총매출액은 127억 7,700만Euro(142억 1,300만Euro), 순이익은 76억 5,800만Euro(69억 400만Euro)에 달한다. 총종업원수는 12만 2,000명이다. 작년의 12만 3,300명보다 1,300명 줄었다.

전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1924년 Paris에 설립된 France석유(CFP)에 France정부가 1931년에 35%의 자본을 참가하여, 발언력을 확보했다. 제1차대전후의 중동 이권싸움에도 가세해 토르코(후의 이라크 석유회사)에는 Anglo Persia(현 BP), Royal Dutch Shell, America재단과 함께 CFP가 모두 23.75%의 권익을 확보했다. 1929년 5월에는 France석유정제(CFR),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1년 12월에는 Aquitaine석유(SNPA)가 설립되었다. 이란석유 분쟁 후의 1954년 8월에 성립된 이란 컨소시엄 협정에서는 영미 메이저 회사들에 섞여 CFP도 6%의 주식보유비율을 확보했다. CFP는 1985년 6월에 TotalCFP로 개칭, 1991년 6월에 Total로 사명을 변경했다. France 국영 Elf는 1986년 8월, 10~15%의 특권적

주식을 제외하고 민영화하여, 1994년 2월 국영 SNEA가 Elf Aquitaine으로 사명을 변경, 1996년 11월까지 완전히 민영화했다. 그리고, Petrofina를 흡수한 France 제1위의 TotalFina가 제2위의 Elf Aquitaine에 대해 합병을 제안해 1999년 9월에 합이 성립한 것이다.

수익 · 투자동향

2000년 2월, EU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족한 TotalFinaElf의 순익(특별비목 제외)은 2001년에는 75억Euro로 2000년 실적을 2% 밀돌았다. 다른 메이저와 마찬가지로 4/4분기에는 14억 1,000만Euro에 머물러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영업 실적은 나쁘지 않다.

TotalFinaElf는 2001년의 상류부문 조업수익을 보면, 2000년 101억 1,000만Euro에서 89억6,000만Euro로 11% 감소했다. 하류부문 수익도 31억 4,000만Euro에서 29억 6,000만Euro로 6% 줄었다. 상류부문에서는 탄화수소 생산량이 220만b/d(212.4만b/d)으로 늘어났는데 원유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하류부문에서는 정유공장 처리량이 2000년의 240만b/d에서 250만b/d로 상승하여 가동률이 94%에서 96%로 상승했는데, 제품시세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화학부문 순익은 16억 3,000만Euro에서 10억 8,000만Euro로 34%나 줄었다.

TotalFinaElf의 2001년 투자액은 98억Euro로 2000년보다 18% 늘어났다. 투자액별 내역은 상류부문 71%, 하류부문 11%, 화학부문 16%, 기타 2%이다. 상류부문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2년 계획을 보면, 2001년과 비슷한 97억Euro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구성은 상류 73%, 하류 14%, 화학 13%, 중점은 역시 상류부문이다.

상류부문

TotalFinaElf는 2001년에는 세계 45개국에서 탐광 ·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원유생산량은 145만b/d, 2000년의 143만 b/d 대비 1% 증가, 천연가스 생산량은 40억 5,000만입방ft/d로 전년의 37억 6,000만입방ft 대비 8% 증가했고, 가스 생산량의 증가가 크다. 석유, condensate,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 전체의 총생산량은 석유환산 220만b/d로 작년의 212.4만b/d를 3.6% 상회했다. 자산매각의 영향을 별도로 놓고 보면, 상류부문 생산량은 2001년에는 5.3%나 늘었다. 2001년말 현재 매장량은 천연가스를 포함해 석유환산 109억 8,000만Bbl에 달한다. 이 가운데, 37%가 가스 매장량이다. 가스 공급망에는 큰 share를 보유하고 있는데, 2만km 이상의 고압가스 pipeline에 대한 권익을 갖고 있다. 1만 1,000km 에 대해서는 자사가 operator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의 증산은 주로 영국령 북해의 Elgin-Franklin 유전, Angola의 Girassol, Venezuela의 Sincor, Iran의 South Pars가 조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Elgin과 Franklin유전의 산유량 합계는 22만b/d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TotalFinaElf가 100% 권익을 보유하고 조업하고 있는 Nuggets 가스전도 조업에 들어가 지분 54.3%의 Otter유전 개발도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K4BE가 가스 생산을 시작, Norway령 북해에서는 Huldra gas·condensate전이 가동에 들어갔다.

Angola의 Girassol은 수심 1,350m의 심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개발이다. 예상 생산규모는 석유환산 20만b/d에 달한다. Africa에서는 Atora유전이 조업에 들어가고 Libya에서는 신규 발견이나 개발개시가 이어졌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봉가 South west에서 대발견에 성공했다.

북미의 Gulf of Mexico에서는 TotalFinaElf가 전 권익을 가진 Matterhorn유전 개발에 착수했다. 남미의 Argentina에서는 Carina, Aries 가스전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들 모두 티에라 델푸에고 연안 앞바다에 소재하여, 2004년에 가동을 시작한다. 가스 생산량은 4억 2,000만입방ft/d에 달한다. TotalFinaElf는 개발을 담

당하고 있는 Cuenca Marina Austral-1 consortium의 operater이다. Bolivia에서는 동사가 15% 출자한 San Alberto가 가동에 들어가고, 41% 출자해 조업하는 광구 XX에서 신규 가스 발견에 성공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신콜 project의 생산시설이 운전을 시작했다. Orinoco belt의 초중질원유(API8~8.5℃)에서 API 32℃의 고품질·저유황의 합성원유 Zuata Sweet 18만 b/d를 생산한다. 이 합성원유의 첫출하는 2002년 3월이다. Trinidad and Tobago에서는 30% 권익을 갖는 심해광구에서 2건의 석유발견에 성공했다.

이란에서는 60% 참가하는 Sirri-A-E project가 완료, South Pars거대 가스전 생산이 2002년 1/4분기부터 시작되었다. Saudi Arabia정부가 허가한 'core venture3' 계약을 위한 컨소시엄에 TotalFinaElf는 30% 참가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dolphin project의 일환으로 Qatar에서 UAE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협정에 조인했다. Indonesia에서는 Tuna 생산시설에서 75km 떨어진 Donggala 심해광구 획득에 성공했다. 구 USSR권의 카자흐스탄에서는 OKIOC의 consortium 지분을 14.28%에서 16.67%로 늘리게 됨에 따라 카사간 유전에 갖고 있는 권익이 늘어났다.

2001년 TotalFinaElf의 상류부문 활동은 활발했다. 2001년의 상류부문 투자는 75억Euro에 달한다.

하류부문

정제·판매부문은 유럽에서는 수위, Africa에서는 수위를 다투고 있다. 석유·제품거래 사업활동은 활발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정제능력은 260만b/d, 정유공장 처리량은 2001년에는 246.5만b/d(전년은 241.1만 b/d)였다. 유럽내가 2195만b/d(210.9만b/d), 나머지 지역이 27만b/d(30.2만b/d)이다. 유럽 역내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유공장 가동률은 2000년의 94%에서 2001년에는 96%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Total, Elf, Fina의 brand를 내건 계열 주유소는 16,900개로 370만b/d의 석유제품을 판매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81%,

Africa가 7%, 미국 8%, 기타가 4%이다. 2001년의 하류부문 투자액은 12억Euro, 하류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35,743명이다.

특별비목을 제외한 하류부문의 조업이익은 2000년의 31억 4,000만Euro에서 2001년에는 29억 6,000만Euro로 6% 감소했다. 시장환경이 악화되었는데도, 하류부문의 영업실적이 소폭 이익감소에 그친 것은 합병의 synergy 효과와 생산성 향상계획이 조업이익에 7억Euro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러스 요인은 시세악화 등으로 9억Euro의 마이너스 요인 등에 의해 상쇄, 흡수되어 버렸다. 그러나, 특별비목을 제외한 하류부문의 순조업이익은 2000년의 22억 3,000만Euro에 대해 2001년에는 22억 6,000 만Euro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화학·가스·전력 등

화학부문의 판매액은 2000년의 208억Euro에서 2001년에는 196억Euro로 6% 감소했다. 특별비목을 제외한 조업수익은 2000년의 16억 3,000만Euro에서 2001년에는 10억 8,000만Euro로 34%나 감소했다. 석유화학과 수지부문 조업수익이 격감한 것은 물량과 마진이 모두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중간유도체와 Polymer부문의 조업수익은 2001년에는 4억 5,000만Euro였다. 2000년의 4억 8,000만Euro 대비 6% 감소에 머물러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특수화학 제품 판매액은 2000년의 인수에 의해 2001년에는 증가했지만, 조업이익은 미국경제 악화가 영향을 미쳐 6억 2,000만Euro에 비해 4억 9,000만Euro로 21%나 감소했다. 화학부문의 환경악화는 2001년의 조업이익에 거의 6억Euro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별비목을 제외한 순 조업이익은 2000년의 9억 6,000만Euro에서 2001년에는 7억Euro로 27%나 감소했다.

Gas & Power부문에서는 통합 전략구축에 의욕적이다. 남미와 유럽에서는 발전소나 Gas pipeline망의 권익취득이나 지반강화를 진행시키거나 중동과 아시아의

각종 project에 참가하고 있다. France에서는 서남부의 고압 Gas pipeline 개발이나 France 최초의 전력거래시장인 Power Next 설립에 참가했다. Spain, Argentina, Chile, Brazil 등에서는 각종 Gas Pipeline project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TotalFinaElf는 링컨셔의 사우스 햄버뱅크에 능력 1,260MW의 co-generation발전소를 갖고 있는 Humber Power의 출자분을 40%로 늘렸다. Argentina에서는 Central Puerto SA의 63.9%와 Hidroneuquen 주식의 70%를 취득했다. UAE에서는 세계 최대급 co-generation project의 Taweelah A1의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Thailand에서는 능력 350MW의 가스발전소 건설공사가 Bang Bo에서 계속되고 있다.

2001년에는 동사의 South Africa자회사 TESA가 600만톤의 석탄을 유럽과 Asia의 buyer에게 판매했다. 게다가, 200만 ton상당의 증기발생용 석탄을 Asia용으로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2001년에는 프랑스의 Flandre 정유공장 부지 내에 총능력 12MW의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벨기에에서는 peak시 연간 6MW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

〈Oil Report, 2002. 10. 28〉